



과학기술, 우리의 **희망**입니다!  
과학기술인, 우리의 **자랑**입니다!



MoST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종합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2110-3763~7  
팩스 : 02-2110-3769

## 과학기술중심사회를 향한 참여정부 4년의 발자취



MoST  
과학기술부

2007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과학기술중심사회를 향한 참여정부 4년의 발자취

## I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참여정부 4년의 성과

- 지표로 읽는 성과 ..... | 06 |
- 주요 연구개발 성과 ..... | 09 |
- 해외의 반응과 평가 ..... | 10 |

## II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주요성과

-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선진화 ..... | 14 |
-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 ..... | 19 |
- 전주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활용 ..... | 22 |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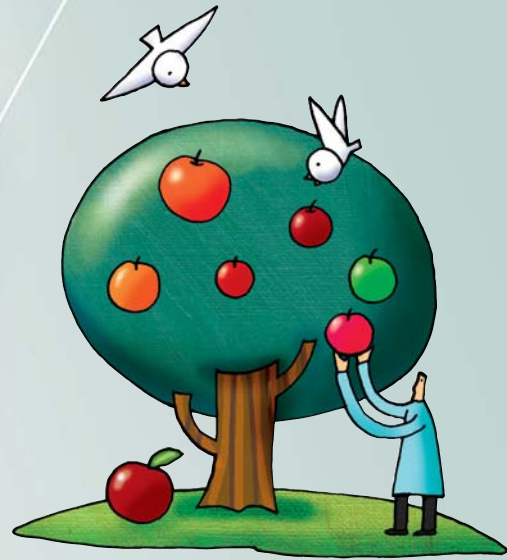
## III 과학기술로 희망한국, 선진과학강국을 실현해 갑니다.

참여정부의 향후 과학기술 정책 과제



# I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 눈으로 보는 참여정부 4년의 성과



### 참여정부 4년,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는길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온 참여정부 4년, 지난 4년간의 노력이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과학기술 발전상에 대한 해외의 호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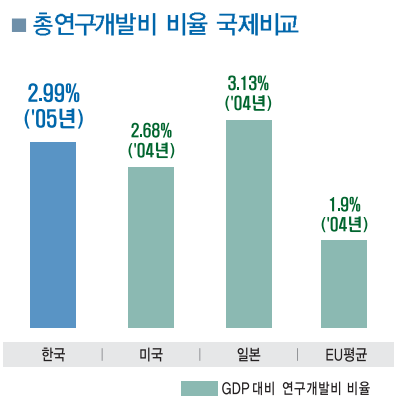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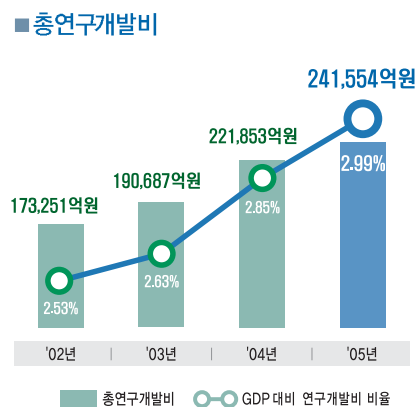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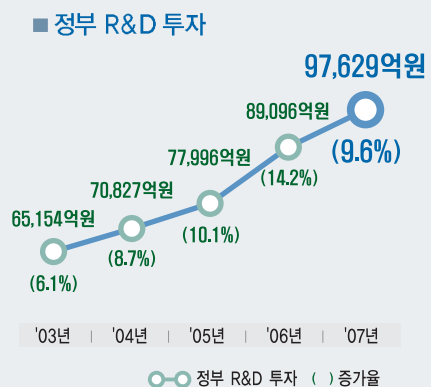
# 1. 지표로 읽는 성과



눈부신 과학기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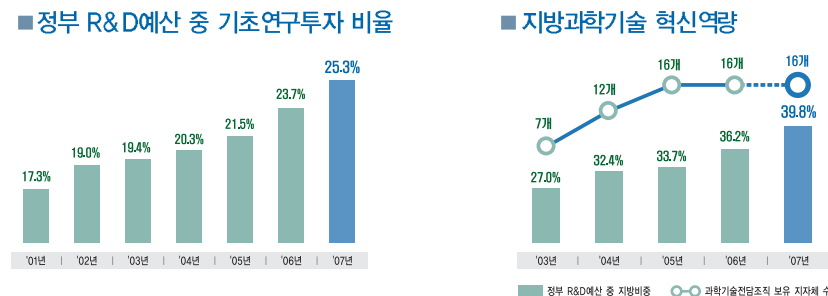
## R&D 투자가 증대되고 투자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 참여정부는 R&D 투자야말로 미래 국가성장에 필수라고 보고, '03년부터 '07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평균 10.6% 높였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실용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충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 또한 총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부문의 R&D 투자를 합한 국가전체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나 GDP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율이 '05년에는 2.99%로 높아져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에 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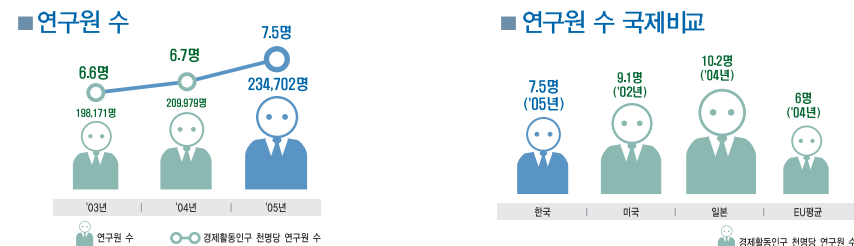
##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기초연구 예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R&D 예산 중 지방 지원비율이 39.8%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전담조직 (실·국·또는 과)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1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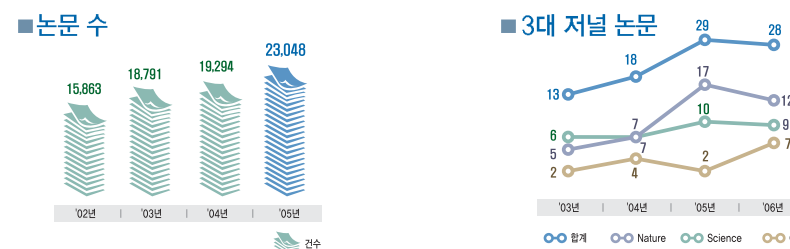
## 과학기술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연구 인력의 상대적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구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SCI 논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과학기술 저널의 논문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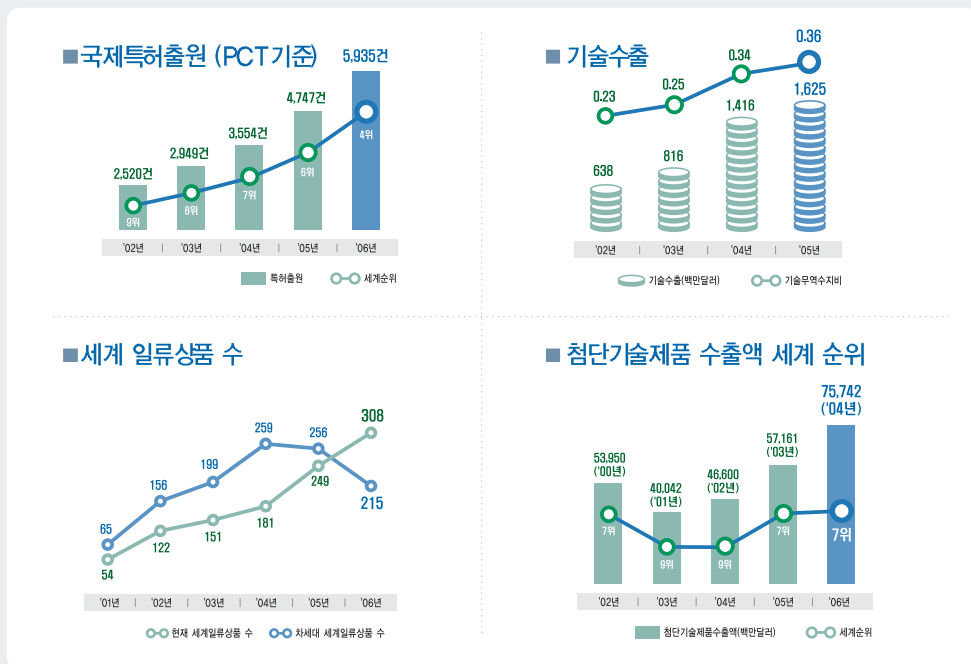


## 2. 주요 연구개발성과

분야별 연구개발성과가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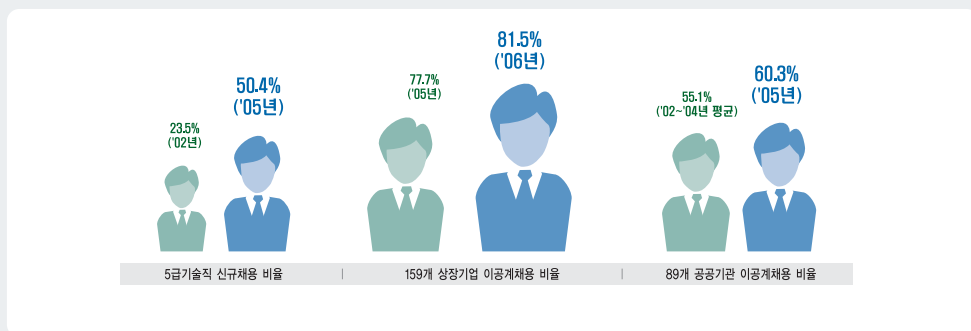
### 산업화 부분의 각종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입에 비해 기술수출이 크게 늘어나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가 개선되는 한편, 세계 일류상품과 첨단기술제품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 정부(5급) · 상장기업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 중 이공계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암 억제 유전자 p18 역할 규명**

※ 「Cell」誌 게재 (05. 1월)

**세계최초로 WiBro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상용화**

※ 수도권 일부지역 상용서비스 개시 (06.6월)

**32기가 낸드 플래시 CTF(Charge Trap Flash) 원천기술 개발**

※ 「IEEE TED」誌 게재 (05. 12월)

**B형 DNA에서 Z형 DNA로의 전환 수수께끼 규명**

※ 「Nature」誌 표지 게재 (05.10월)

###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되었습니다.

**국내 주도로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성공**

※ 교신 및 시험영상 획득 성공 (06.8월)

**국내 기술로 완성한 차기전차**

※ 「흑표」 시제품 출고 (07.3월)

**네트워크 기반 휴머노이드 '마루'와 '아라' 개발**

※ APEC 정상회의 전시 (05.11월)

**세계 세 번째로 자기부상열차 개발**

※ 실용화 모델 개발 (06.9월)

# 3. 해외의 반응과 평가

세계가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 신과학기술 행정체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각국의 높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OECD, EU 등 선진국으로부터 대표적인 국가혁신사례로 손꼽히며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01



**EU보고서 (04.4)**

“과학기술이 어떻게 국가경제를 도약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표본을 찾고자 한다면, 한국을 보라”

02



**OECD 보고서 (04.5.26)**

“한국은 제도적 환경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단선적인 모델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행정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03



**이탈리아 Il Sole 24 Ore (05.7.30)**

“한국은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최고의 역동성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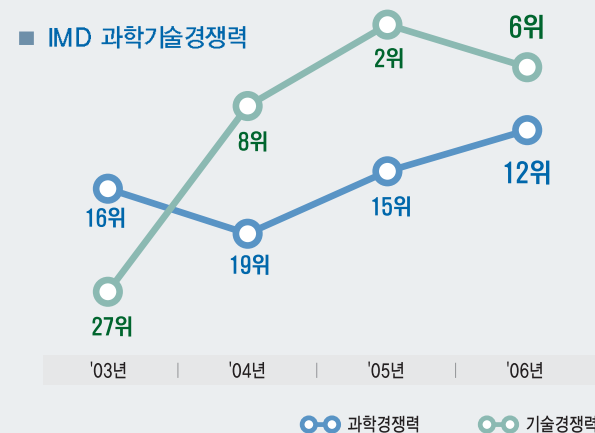


**핀란드 국가기술청 (05.10)**


“향후 한국은 세계연구개발의 선두주자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며, 2004년의 과학기술체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과감한 과학기술투자를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대해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IMD)은 참여정부 4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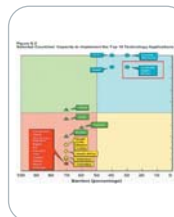
01



**OECD 보고서\* (06.2)** \*「Economic Policy Reforms : Going for Growth」

R&D 혁신성과평가에서 한국을 노르딕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선두권 국가(leading countries)로 분류


02



**미국 RAND 연구소「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보고서 (06.6)**

29개의 분석 대상국 중 한국을 미국, 독일 등과 함께 「과학선진국」 그룹의 7개국에 포함

03



**영국 Demos 「지식의 지형 (Atlas of Ideas)」 보고서 (07.1)**

한국이 중국, 인도와 함께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라



## II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주요성과



### 참여정부 4년,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참여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불꽃을 점화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래도약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이전	혁신시스템	참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체계, 정책간 연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IS 구축, 과기부총리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확대에 중점</li> </ul>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연계 등 투자효율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분야 집중 육성</li> </ul>	성장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 미래선도분야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별, 공급자 중심</li> </ul>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기적, 수요자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문화 확산사업 착수</li> </ul>	과학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참여 확대 (사이언스코리아)</li> </ul>

#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선진화



## ●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참여정부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꾀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기술혁신체계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새롭게 정비하고,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중심 사회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NIS 구축계획을 마련하여 '04.7.30일 확정하였습니다.

NIS의 구심체로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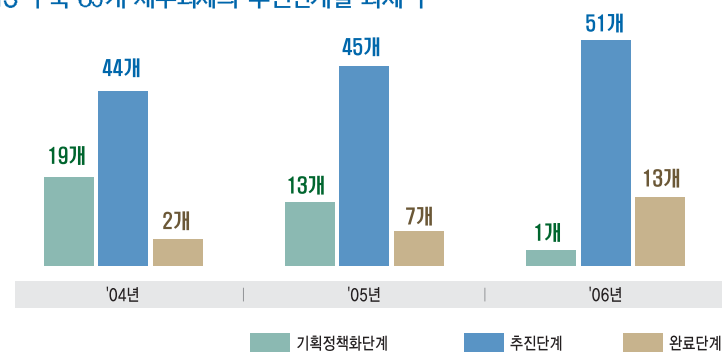


## ● 국가기술혁신체계 2년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NIS 구축방안이 수립된 지 2년을 지나면서 과제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 ▶ 기획·정책화 단계의 과제가 19개 (29.2%)에서 1개 (1.5%)로 대폭 줄어들고, 완료단계의 과제가 13개로 크게 증가 (20.0%)

■ NIS 구축 65개 세부과제의 추진단계별 과제 수



- 특히 참여정부 초기의 강력한 개혁 추진으로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과제도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 ▶ 제도개혁의 성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국가R&D사업 예산조정배분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조세지원제도 개선, 대덕R&D특구법 제정, 기술사제도 개선,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공학교육인증 등

- NIS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혁신을 통한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9개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연구개발예산을 전략적으로 조정·배분하였습니다.

▶ 국가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전략 등에 제시된 국가발전 목표와 투자방향에 따라 자원 조정·배분

〈07년 국가 R&D예산·기금의 중점투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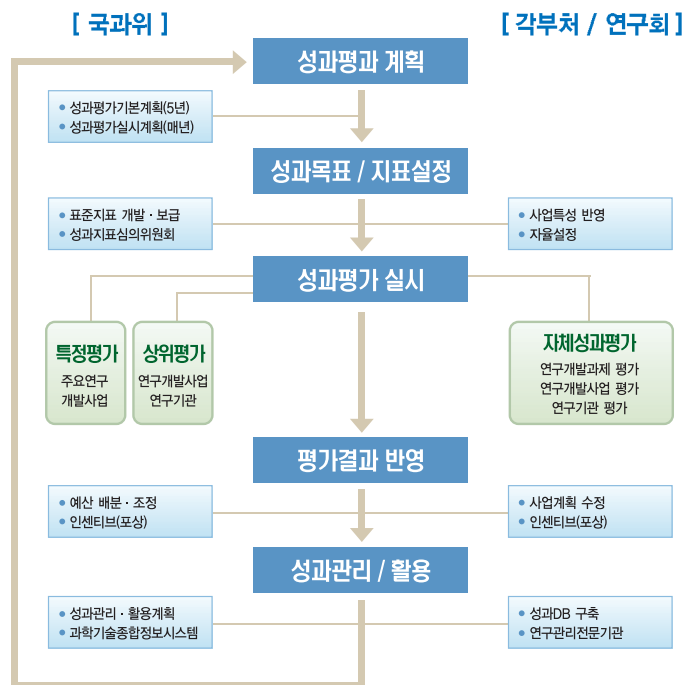
-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공공·복지기술, 문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
-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원

-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를 예산조정·배분에 긴밀히 연계하였습니다.

▶ 평가결과와 예산 반영률 : (03) 63.1% → (06) 95.5%

-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제도 개요〉



## 2.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

### ●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5~10년 후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10개 성장동력을 범부처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디지털 TV/방송, 바이오 신약/장기, 차세대 전지,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 ▶ 가정용 청소로봇 등 136개 시제품 개발, 특허등록 932건 등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기술개발 완료단계 또는 종료된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실용화 촉진이 필요한 과제를 범부처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 자기부상열차, 뇌질환 치매치료제, 대형위그선, 디지털액터 제작 등 4개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BT·NT 및 대형 공공기술 분야에 총 22개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 2006년 성과 : 기술이전 70건, SCI 논문 960건

### ●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적 장기계획을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 ▶ 기초연구 예산비중 : (03) 19.4% → (07) 25.3%
- ▶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종합계획 (06~10) 수립

## 주요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정보통신

IT339전략을 수립(04.2)하여 IT가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기술 (9개) 개발, 서비스(8개) 제공 및 인프라(3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 GDP 대비 IT 산업 비중 : (02) 11.1% → (06) 16.2%



### 생명공학

「Bio-Vision 2016」(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06.11) 등 바이오 분야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응용분야별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06.2월),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06.5월)

▶ 정부 BT분야 R&D 투자규모 : (02) 4,503억원 → (06) 8,021억원



### 나노기술

나노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6~15)」을 수립·추진하고 부처별 추진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9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05.12월) : (06) 2,788억원 → (07) 2,896억원 예정

▶ NT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01) 25% → (06) 70%



### 환경기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 사업단 중심의 Eco-Star Project 등 중장기 전략 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 (02) 993억원 → (06) 1,288억원



### 건설교통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R&D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전략적으로 투자할 10대 유망기술(VC-10) 선정, 실용화 중심의 R&D 원칙 확립



### 핵융합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수립(05.12월),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06.11월)



### 우주기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 성공(06.7월),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 등을 통해 국민참여형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전략기술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우주개발 진흥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R&D예산 중 우주개발예산 비중 : (03) 2.0% → (06) 3.4%

▶ 우주개발진흥법 제정(05) 및 국가우주위원회 구성·운영(06)



### 원자력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원자력기술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수출 증가 : (02) 0.5억불 → (06.1~7월) 6.1억불



### 국방기술

국방과 비국방 R&D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방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과위 운영위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 신설(07.2)

▶ 국방비 대비 R&D 투자비율 10%(07년 5.1%)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 R&D를 연 12% 증액



### 3. 전주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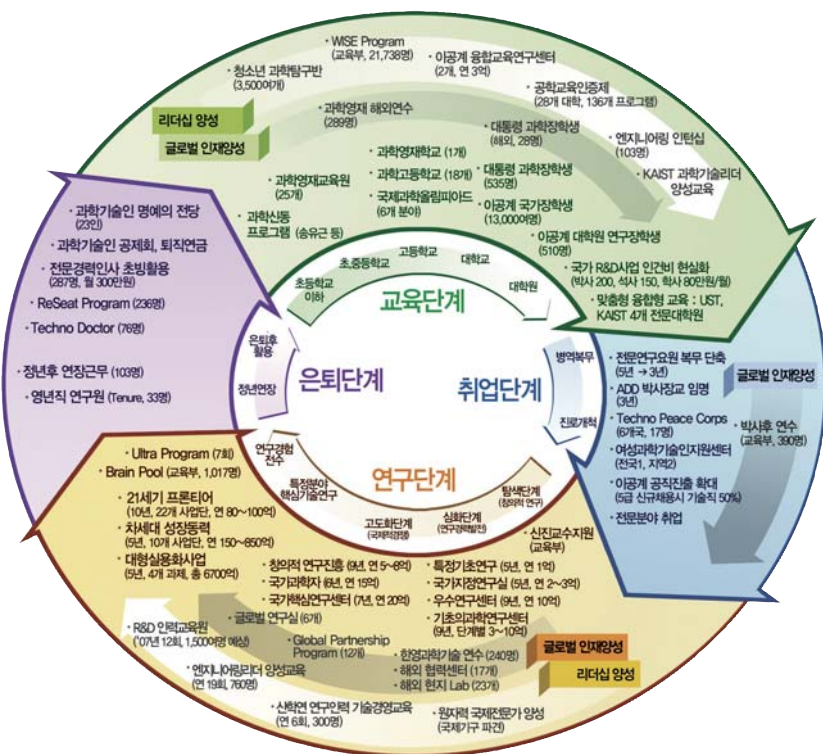
#### 전주기적 인력양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제정(04.3) 하고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을 수립(05.8) 하였습니다.

▶ 창조적 인재강국 실천계획을 포함 5대 부문, 14개 중점과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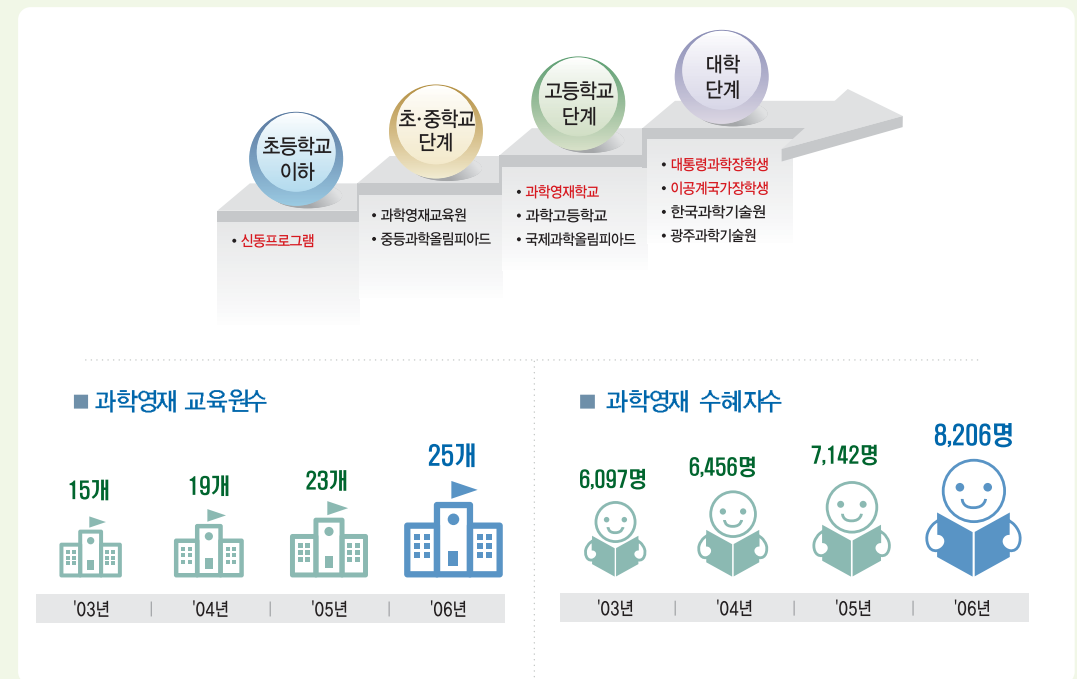
-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마련(03.8)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도입(05.4) 하였습니다.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양성 및 관리체계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특화교육을 실시합니다.

- 성장단계별로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과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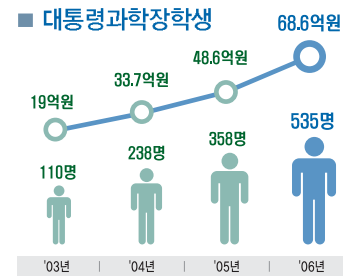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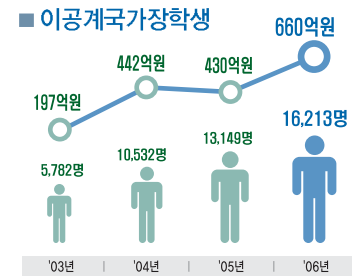
- 수업에 대한 성취동기와 이해도 증진 (신송고 김명자 교사)
- 학생대상 교과서 만족도 조사 : 호기심 증대 82.9%, 친절한 설명 85.4%
- "책 보며 웃자" 과학교과서 대변신(SBS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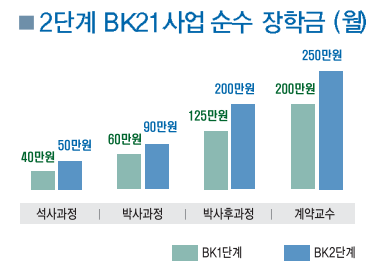
##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더 교육에 앞장섭니다.

-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공계 진학하는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선발·지원 (03신설)



-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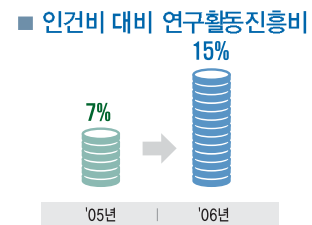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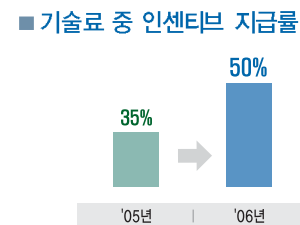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학생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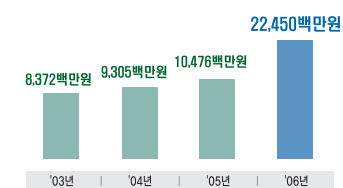
- 박사과정 200만원/월
- 석사과정 150만원/월
- 학사과정 80만원/월

## 재직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인센티브 및 연구활동진흥비를 늘리고, 연구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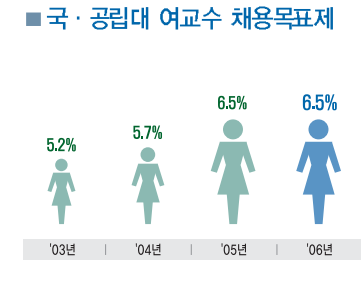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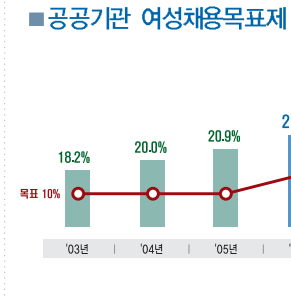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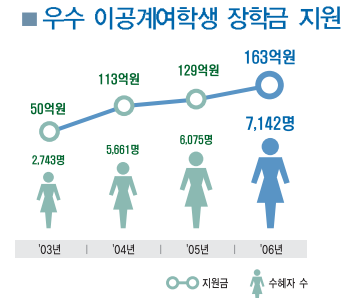


- 연구의욕이 왕성한 신진교수 (교수임용 5년 이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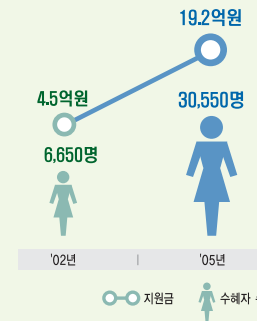
## 여성과학기술인을 당당한 과학기술의 주체로 키워갑니다.

- 이공계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 중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신규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여성 과학기술자와 초·중·고·대학 여학생간의 멘토링을 추진합니다.

- ▶ 전국센터 1개(이화여대, 04)에서 지역센터 2개(전남대, 동서대, 06) 추가 설립
- ▶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프로그램 추진



- 여성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 가치관을 전수하여 과학기술 분야 진출유도

(02) 4.5억원 → (05) 19.2억원

(02) 6,650명 → (05) 30,5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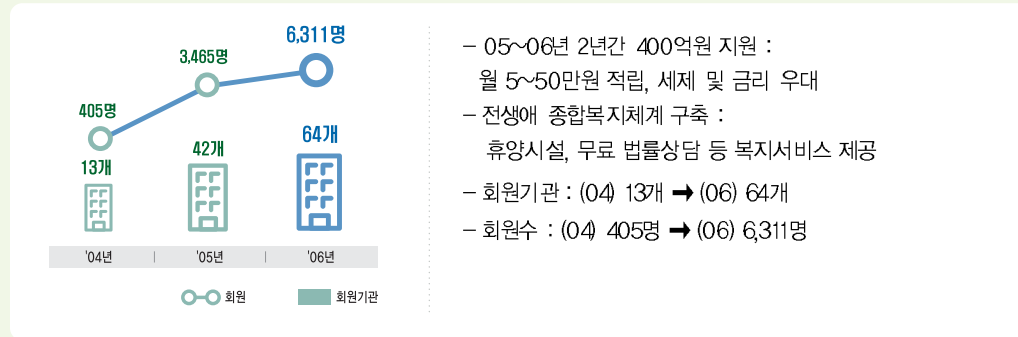
## 퇴직과학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를 설계합니다.

- 퇴직 연구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퇴직 과학기술인들의 경력과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 ▶ 'Techno Doctor사업' 으로 퇴직연구원들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중소기업을 지원
  - 06년 76명, 1인당 월 2백만원 정부지원 (기업체 50만원 매칭)
- ▶ 'ReSEAT 프로그램' 으로 퇴직인력들이 국내외 기술정보를 분석·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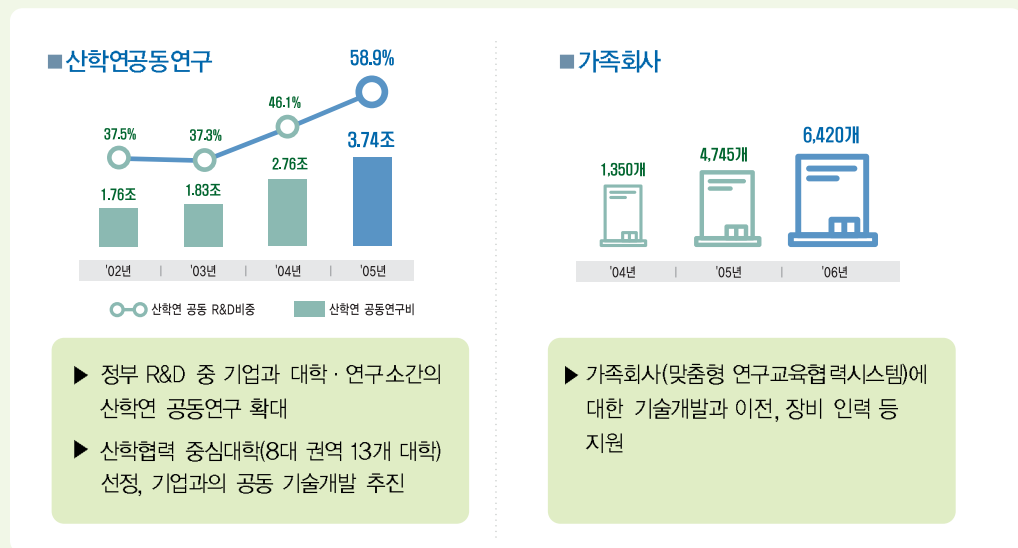
## 4.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03)으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 산·학·연 협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학협력이 한층 긴밀해졌습니다.



- 'Connect Korea' 사업으로 대학 R&D 성과의 상용화를 돕습니다.

- ▶ 06년 18개 대학 선도TLO(기술이전조직)에 총 60억원 지원
- ▶ 10년까지 기술이전 건수 4,800건, 기술료 수익 700억원 예상

-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 ▶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05) 44개 → (06) 66개
- ▶ 정부 R&D 예산 중 산학연 공동연구비 : (02) 1.8조원 → (06) 3.7조원

### 출연(연)의 연구 활성화와 성과확산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 정부출연(연)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있는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연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5.9)

- ▶ 출연(연)별 소수 전문연구과제에 연구역량 결집, 출연(연)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의 자율적 수립·추진 등
- ▶ 출연(연) 전문성·경쟁력 강화, 우수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 연구회·연구기관의 자율·책임 운영 강화 등

- 국가 발전목표와 출연(연) 임무·기능에 부합하는 Top Brand Project (06.7월~)를 통해 출연(연)별 특성화·전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출연(연) 연구성과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 건기(연)의 200년 지속형 교량기술 (Super Bridge) 등 총 33개 기관, 71개 과제
- ▶ SC논문 (02)1,759건 → (06)2,983건, 특허등록 (02)1,524건 → (06)4,029건

###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과학기술계 및 관계부처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 (07.2)하였으며,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 지침 해설서 마련, 연구기관 현장방문 (06.9~11. 18곳), 설명회 (06.8) 및 워크숍 (06.12)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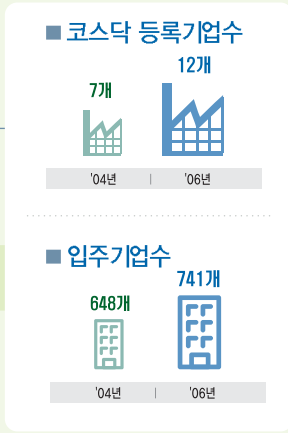




## ● 대덕을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단지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육성법」 제정(05.1) 「특구육성종합계획」 (05.11) 수립



## ●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 Networking)의 일환으로 울트라(Ultra)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수 한인 과학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06년 (6회) : 서남표 (MIT, 인력양성), 김정은 (길리아드, 신약개발), 신강근 (미시간대, 로봇), 박홍근 (하버드대, 나노기술), 데니스 최 (머크사, 뇌과학), 김신제 (루이빌대, 자궁경부암)  
▶ 07년 (1회) : 하버드대 김광수, 시카고대 강운중 (뇌과학)

- 지구적 생물다양성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 중남미(코스타리카) - 동남아(말레이시아) - 중국(운남성) - 아프리카(남아공)

- 과학기술 지원단(Techno Peace Cor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등에서 교육, 기술지도 실시: 06년 17명, 07년 30명 예정

- 파스퇴르연구소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로 동북아 R&D 허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유치연구기관 : (04) 9개 → (05) 30개 → (06) 46개

## ● 과학기술 대중화·생활화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03~07)을 수립(03.12)하고, 민관 합동의 사이언스코리아운동(04.4)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 청소년과학탐구반 운영 : (02) 112개 → (06) 585개  
과학기술인의 직접 강연 횟수 : (02) 264회 → (06) 1,078회

- 과학기술과 타 분야(예술, 사회, 스포츠 등)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새로 보는 과학기술」 (06.9월부터 3회 실시 - 인간, 예술, 사회와의 만남)

-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MD 세계순위 : (03) 48위 → (06) 22위

## ●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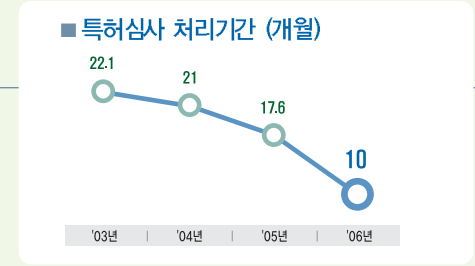
▶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사업화' 기반 강화 (06.12월)

- 대학·공공기관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 이전율 : (02) 14.3% → (05) 20.7%

## ● 특허심사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 심사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빨라졌습니다.



## ●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2006년말에서 2009년 말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취득금액 등의 세액공제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 신기술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7개의 신기술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였습니다.

▶ NET(신기술)과 NEP(신제품) 두개의 유형으로 인증제도 통합 (06.1)

# Ⅲ 과학기술로 희망한국, 선진과학강국을 실현해 갑니다.

참여정부의  
향후 과학기술 정책과제



## 함께가는 희망한국 - 2030

참여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과학기술 정책을 원칙 있게 더욱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로 희망한국 2030 실현을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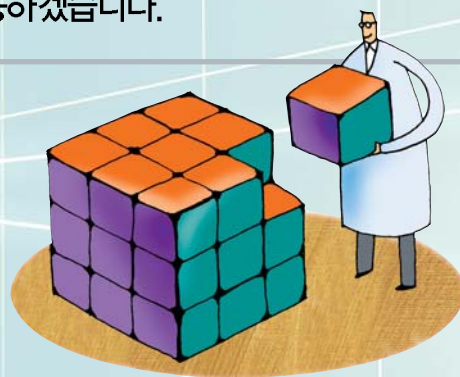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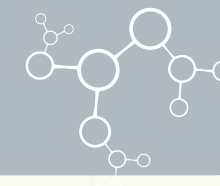
## 1. 그 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착실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 미시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범부처적으로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 21세기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국가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국가R&D사업 Total Roadmap」에 기반한 부처별 R&D계획 및 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조정
-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 Networking)를 통해 해외과학기술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2. 앞으로의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국가 기술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기초·원천 기술의 기반위에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는 특성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정부 R&D자원 배분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의 미래로 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결실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